믿음은 현실 도피성(性)이다

(신명기 19:1~13)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현실 도피성(性)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성(性)이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도피성(性)입니다. 이 현실 도피성(性)이 현실 도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 도피'는 물리적으로 삶의 공간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면 '현실 도피성(性)'은 물리적으로는 내 몸이 삶의 공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이 도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현실 도피는 진짜로 내 몸이 빠져 나가는 것이고 현실 도피성(性)은 몸은 삶의 공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마음이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끄럽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 없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분명히 '현실 도피성(性)이다'라고 외쳐야 입니다.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

하기를 “현실의 사회 경제적 모순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에게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갖도록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의 눈에는 “기독교가 민중들로 하여금 내세에만 관심을 갖게 함으로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사회비판과 계급투쟁으로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인민의 아편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피의 혁명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맞서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인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미덕입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실패자가 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현실을 개선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주어진 현실이 있으면 그 현실을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도피하는 것이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안달하며 사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도피성(城)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 속에는 도피성(性)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도피성(城)’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고, 도피성(性)은 도피하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城)이 선민들에게 하나의 규례로 주어진 이유는 ‘선민이라면 도피성(性)을 가지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도피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는 얘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도피성(城)에 관한 규례가 뜻하는 바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죽음을 피해 주님께로 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맞는 얘기지만, 좀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하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죄와 허물’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제 1의 요소는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현실 상황에 먼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십계명 등을 어기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진짜 죄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먼저 묶이고 먼저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많은 대상들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도피성(性)을 가짐으로서 현실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강력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우선적인 존재이시고, 더 우선적 관심의 대상이시며, 더 우선적 나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도피성(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도피성(城)은 부지중에(의도성 없이) 한

행동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 그 행위의 당사자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복수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느냐? 그 예를 드는데 나무를 하러 이웃끼리 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던 중에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와서 앞에서 벌목을 하던 이웃의 머리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웃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황당하고 분통이 터짐으로 가해자를 죽이려고 드니 도피성(城)으로 피하게 합니다. 졸지에 한 사람이 죽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죽게 한 당사자는 의도성이 없었으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부터 피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참 의문점과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양식 먹을 때 날카롭지 않은 고기 써는 칼이나 젓가락 같은 것을 들고 있어도 마음이 섬뜩할 때가 있는데 잘못해서 넘어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곡괭이나 도끼를 휘두를 때에는 사용할 때마다 그 곡괭이 자루와 도끼자루의 연결 상태를 검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곡괭이와 도끼와 도끼자루가 만나는 부분에 못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헐거워지면 가운데 못을 침으로서 도끼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예를 든 이 경우에 있어서 도끼에 맞아 죽었다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법이 있는데 '과실치사죄'로 의도는 없었지만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나 의무를 위반함으로 타인을 사망케 했을 때, 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졸지에 남편을 잃은 아내가 생기고 아들을 잃은 부모가 생기고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이 생겼다면, 이건 정말 황당한 사건으로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 하나 살았다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과실치사'로 인한 죽음의 경우 도피성(城)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인간세상에서는 과실치사로 규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도끼로 사람이 죽게 된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10:29~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선민이 이웃의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맞아죽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죽음일 수 있겠습니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 자기 도끼로 인해 이웃을 죽게 한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의 죽음 자체를 보면 '참새 한 마리가 죽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의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던 이웃이 벌목할 때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죽게 되므로 데려가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러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에게는 머리털 까지 세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관심이 한시도 중단 없이 너희에게 와 닿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도끼에 맞아 죽었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결국 내가 의도해서 죽인 것은 아니지만 내 도끼가 빠져서 이웃에 맞게 되는 이 불행한 사건 속에는 내 의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봅니다. 요14:10~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에 '내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 사람이 죽은 것에 내 의도가 하나도 없었듯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 속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한 순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진 것과 같은 삶을 공생애 내내 사셨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당신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당신이 하신 모든 행동에 대해서 도피하셨습니다. 내 의도 아니고, 내 책임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뜻한 바가 아니고 내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전 정화를 하셨을 때도 '당신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시고 '내 도끼에서 도끼자루가 빠져나간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누구의 의도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므로 내 의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릴 보고 '너 미쳤냐?'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법으로 허용도 되지 않고 '당신 책임'이라고 하고 '성숙한 인격자로서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서 '내 의도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 '이 무슨 이상한 소릴 하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요15: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하시는데 무슨 얘깁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의 의도는 어디서 작용을 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서 작용을 합니다.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누구의 의도에 따른 것입니까? 뿌리와 줄기를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의 의도에 따라서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은 선호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선호미래'는 내가 원하는 미래가 주어지도록 점쟁이에게 가고 복술가에게 가고 미신적 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몰두하면서 이것이 유일한 나의 관심거리로 지금을 살아갈 때,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주어지는 결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더 바싹 끌어들여서 지금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피성의 얘기를 합니다.

선호미래와 결과미래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호현재(지금)가 있고 결과현재(지금)가 있는데 우리는 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금을 나의 의도를 가미함으로써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에 변화를 주기 원하는데 그 얘기가 다음 부분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위증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선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의도인 마음과 뜻과 힘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현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장악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城)은 도피성(性)을 선민에게 요구하는 근본취지를 갖고 거듭거듭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피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좀 더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도피성은 주님이 승천해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부터 계속 하셨던 교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의 교제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엡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현실 속에서 도피하고 사는 것이므로, 내가 움직여서 행동한 결과가 나타날 때 거기엔 정말 내 의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 갈2:20절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단하다고 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서 도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고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하고 잘했다고 하는 일에서도 도피하라는 것인데 완전히 도피성(性)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해놓고는 '자기가 안했다'고 하고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선민이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도피성(城)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벌목하려고 도끼를 휘둘렀는데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이 죽었다면 '의도성이 없으므로 너는 책임지지 말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있으라.'는 것인데 '모든 죽음으로부터 네 인격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도피성(城)에 대한 얘기가 도피성(性)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도피성(性)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왈가왈부 말이 많을 것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도피성(城)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이지요. '도피성(性)의 사람이 되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늘 현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도피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일에서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도피성(性)의 삶을 사는 게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분명히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와서 죽게 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의 머리털 까지 세신 바 되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머리카락이 빠졌으므로 그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고, 벌목하는 가운데 나뭇가지에 걸려서 또 빠질 수도 있으니 벌목하는 동안도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게 도끼가 날아와서 도끼에 맞아 죽어서 하나님도 허망해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내 의도는 아닙니다. 내 의도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갖기 위한 일에만 다 가있습니다. 하나님을 갖는 일에만 다 가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것인데 도피성(性)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일에서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성질 낼 것도 없고 예수님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소리 하지 않고 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거기서도 도피합니다. 내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뿐인데, 이게 선민이고 도피성(性)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현실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빠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라고 자식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으로부터 도피하라고 주셨습니다. 자식과 만나는 시간에 마음이 도피해야 합니다. 사업을 잘 하라고 사업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사업장으로부터 도피하라고 주셨습니다. 목회 잘 하라고 목회현장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목회현장으로 부터 마음이 도피하고 목회현장에서 일어나는 나에 의해서 되는 말과 행동이 다 내 의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회현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사회에 많이 퍼지면 그 사람 모두를 움직이는데 사람의 의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만 나타나게 되는데 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사람이 죽는 것을 불행하다고만 보았는데 사실은 도피성(城)에 대한 규례가 뜻하는 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된 선민이 열 명이 있다면 그 열 명이 움직이는 영역에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의도만 나타납니다. 백 명이 있다면 백 명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의도만 나타나는 것이고 내 의도는 죽어버립니다. 천 명, 만 명, 천만 명이라면 천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城)의 규례가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와 일치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에 가담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철저하게 도피하고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도피하지 말고,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십자가 붙잡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도피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피성(城)의 규례가 도피성(性)을 우리에게 요구함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십자가 생활화가 곧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마음이 현실을 도피하여 하나님께로 가서 머물게 되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의도만 나타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